

달라지는 주택공급제도

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

3자녀이상 가구에 年 6,000가구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 통장 재사용 가능

건설교통부가 입법에 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입법에 고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거쳐 내달 중순부터(후분양제는 내년) 시행된다. <후분양제>=일정부분 공사를 한 뒤 분양하게 되는 후분양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대상은 주공이 짓는 전국의 공공 분양주택과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

택으로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지난해 기준 연간 4만여가구 정도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원 이의·과주·김포·송파 등 신도시 건설이 잇따르고 이들 기관이 주도해 된 뉴타운 사업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줄줄이 대거하고 있어 후분양제의 영향을 받는 공공주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을 40%로 맞추는데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초기인 내년에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3자녀 이상 가구 혜택>=내달 중순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3%가 이들에게 공급되는 데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고 과거에 분양주택 당첨여부, 주택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6천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되고 수혜범위가 2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간에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의 연령, 지역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우

선순위에점표의 점수에 따라 선정된다. 관교신도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될 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 전체 분양주택 6천767가구의 3%인 203가구이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평형 당첨자가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평균액만큼 채권을 사야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혼부부 등은 층의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같은 3자녀 가구라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와함께 소년소년 가정, 소득이 낮고 부모가 한명인 가정, 철거 세입자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도 포함됐다. <기타>=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전용 15평(50㎡)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이하, 15~18평은 70% 이하로 된 소득 기준을 70% 이하로 맞췄다. 다만 15평

▲후분양제 민간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우대 지원,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아파트의 후분양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주택은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25만 837원이다. 또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입주 소득기준으로 조정, 가족수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저축을 사용한 가구가 똑같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지자체장과 주공 등 공공기관은 자문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분양승인전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 예정상한액 등을 검토, 분양승인 기관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삼호중 12억弗 수수 '대박'

이스라엘 ZIM社와 선박 9척 계약 단일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영양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강수현 사장)이 선박부품 단일계약으로는 사상 세계 최대규모인 12억 달러의 수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일 이스라엘 선주인 ZIM 사로부터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모두 9척을 12억 달러에 수수하는 계약을 이스라엘 현지에서 강수현 사장이 직접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계약은 원화로 1조1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현대삼호중공업 연간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한 컨테이너선은 8,200TEU 4척과 1만TEU 5척으로 2008년 10월부터 건조를 시작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은 이번 수수를 합쳐 올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29억 달러를 수수함으로써 올 수수목표인 24억 달러를 20% 이상 초과달성했다. 또 전체 수수량이 80억 달러를 웃돌아 30개월 분량의 수수잔량을 확보하게 됐다. 영양에 본사를 둔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99년 현대중공업그룹사로 새롭게 출범한 세계 5위의 조선전문기업으로 올해 2조2천억원의 매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양=김한빛기자 hnkim@kwangju.co.kr



5일 광주무등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주최 '중소기업 혁신포럼'에 참여한 300여명의 청중들이 한준호 한전사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경영혁신으로 신용등급 올렸다”

한준호 한전사장 중기청 주최 '혁신포럼'서 강연 中企와 상생경영...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전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펼친 결과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면서 “관련 중소기업 매출도 2003년 3조8천억원에서 2005년 4조4천억원, 협력연구개발은 18건에서 43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5일 광주무등파크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혁신포럼'에 참석, '한전 경영혁신사례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한전은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 유망 전력벤처기업 육성, 상생협력을 위한 3대 액션플랜(Action Plan) 등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과정(99~2004년)에서 노사갈등, 파업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조직력 허물기' '열린경영 나눔경영' '고객서비스 혁신' 등 경영혁신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학계·언론계·NGO 등 외부인사로 '열린경영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여 국내 최대 규모의 '한전 사회봉사단(272개)', '빛 한줄기 희망기금'으로 나눔경영을 열어나갔다. 한 사장은 “이같은 경영혁신활동으로 청렴도가 개선되고 무디스로부터 국내 최고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았다”면서 “또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와 2006년 미국 에디슨 전기대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기업들은 ▲정부인증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및 판로, 마케팅 지원 ▲소프트웨어업종에 병역특례업체 자격요건 완화 ▲산학연 신성장동력 강화 및 매칭예산 개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중태기자 jtlee@kwangju.co.kr

경제 영향은

금융시장 일시적 동요 투자심리 악영향 우려

북한이 5일 주변국들의 우려 속에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경기 하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투자자와 회복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내수에 부담이 우려되고 증권, 외환 등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시장 일시 동요후 안정세>=금융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07포인트 내린 1,279.85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증시는 새벽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에 따른 충격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25.23포인트 급락한 1,260.69로 출발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나뭇잎을 줄였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3.3원 오른 946.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적 소식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했다고 전했다. <투자·소비심리 악영향 우려>=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에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경기선행지수와 기업·소비 심리 하락세, 미진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기 하강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투자심리나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내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이탈과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신용등급 회복이 늦어지고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외환계 가산금리가 높아져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없지 않다.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며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남뉴스

“청년실업 평생 8억 소득손실”

조세연구원 보고서

25~30세 청년기에 실업으로 인해 인적자본 형성에 타격을 받아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물 경우 평생 동안 약 7억3천만원에서 8억원 정도의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제시됐다.

원종학·김종민·김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실업의 원인과 제정에 미치는 장기효과-청년실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청년실업의 장기비용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소득상실분은 실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연령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 실적이 발생해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남는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상실액을 뜻한다. 보고서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는 근로자는 노동시장 초기에 인적자본 축적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지 못해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청년실업자가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중 10% 정도가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문다면 국가 전체로는 청년실업에 따른 장기 소득상실분 현재가치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기업·소·식/

호남지역 생산 복분자 우선 구입

북해가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우선 구입하는 등 '지역농가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복분자 수확철(6월 중순~7월 중순)을 맞아 북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복분자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담양·고창 등에서 생산한 복분자를 우선적으로 대량 구매하고 있다. 복분자 재배면적은 전북지역에서만 지난해 1천879ha에서 올해 2천513ha로 33%나 증가했으며, 생산량도 6천287t에서 68%나 늘어난 1만50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펠 콤팩트, 美 소비자 평가 1위

삼성전자 지펠 냉장고가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구매가이드 전문지인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의 양문형 냉장고 평가에서 종합점수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문형냉장고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제어, 에너지효율, 소음, 사용자 편의성 등 4개 부분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가 '지펠 넥스트'(국내 모델명 지펠 콤팩트)가 종합점수 79점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지펠 콤팩트는 핵심기능인 엑셀러터와 소음부문에 최고 성적인 '엑셀러트'(Excellent) 판정을 받았고, 에너지효율과 사용자 편의성에서도 '매우 우수'(Very Good)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서 '아트클 콘테스트' 개최

LG전자 브라질법인인 액자형 에어컨의 전면 패널에 넣을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LG 아트클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총 600여점의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10만여 네티즌 투표를 거쳐 우수작품 30점을 선정했으며, 향후 제품에 직접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 브라질법인은 올해 액자형 에어컨 'LG 아트클'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1만5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 후관 110만 증산 2009년까지 900억원 들여

포스코가 국내 조선업계의 후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후관 생산량을 110만 늘린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후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생산라인에 대한 설비투자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현재 360만 수준인 후관 생산능력을 2009년까지 470만으로 110만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 3개 후관공장중 1후관공장은 현재 60만에서 67만으로, 2후관공장과 3후관공장은 210만과 90만에서 258만과 145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후관 가속냉각설비의 교체와 3후관공장의 강력 냉각공정기 설치 등 설비보완에 900억원을 투자하고 연속 압연기술을 통해 TMCP강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급부족으로 일본 등에서 연간 50만톤 가량을 수입해왔던 조선용 TMCP강과 해양구조물이나 플랜트용 후관, API재 등 고급 후관재의 공급이 늘어나 국내 수요산업의 소재 수급난이 해소되고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and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Hyeonil Industrial, Kinsil Construction, STService, etc.

아파트 대출 환영. Monthly interest 0.58% (Annual 7%). Regular savings 5.32% annually. M Daegu Savings Bank. Contact: T.(062)223-5506.